

너도 나처럼...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 10만마리 이상,
그 중 상당수가 안락사 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그리고, 버리지 마세요.
생명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

가을호
2019. 11
NO.44
동물보호지



Special
유기동물 보호소는
왜 동물들의 '무덤'이 되었나?

세상 읽기
살처분으로 일관한
방역이 남긴 것들

글로벌 뉴스
숨어 있는
산란계 사육환경 표시

여러분의 후원으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ww.animals.or.kr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매월 뉴스레터, 계절마다 동물보호 계간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 보육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등에 사용됩니다.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 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가을호 2019.11 NO.44

CONTENTS

- 04** 입양해주세요
반려동물 미용실에 버려져 방치되었던 '코스'
- 06** 견생역전
토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08** 세상 읽기
살처분으로 일관한 방역, 남긴 것 무엇이 있었나
- 10** Special
'유기동물 보호소', 안전한 보호의 공간인가 동물들의 무덤인가
- 12** Special 1
유기동물 보호소는 왜 동물들의 '무덤'이 되었나?
- 16** Special Interview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계의 모범생, 세종특별자치시
- 18** 글로벌 뉴스
달걀아, 넌 어디서 왔니?
- 20**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행복한 나눔 오리 경주대회'
- 22** 현장에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가 캣맘, 캣대디들께 드리는 글
- 24** 함께 나눔
곳은 날씨에도 놓치지 않은 소중한 생명
- 26** 생명에세이
2년 차 초보 캣대디의 고민
- 30** 공존&공감
생명 존중을 복돋아줄 동물 관련 문화 정보
- 32** 활동 소식
- 34** 남양주 포토뉴스
"먹어보개, 맛있당!"
- 35** 캠페인 광고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 2019. 가을호

발행처 (사)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기획 동물자유연대 책임 진행 홍현진

제작 Mayday Graphic Studio 정유희
편집 신영배, 박주호 디자인 신제현 교정 박상미 인쇄 순환광고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 종이 및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www.animals.or.kr

입양해주세요



반려동물 미용실에 버려져 방치되었던 '코스'

글 이민주 활동가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미용실에 방치된 13마리 개를 구조했습니다. 13마리 모두 손님들이 미용을 맡긴 후 잠적해 버려진 동물들이었습니다. 코스는 이때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당시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자신이 버려진 줄도 모르는 채 한없이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기다림에 지쳐서인지 코스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고, 낯선 구조팀에게도 그저 살포시 몸을 맡기며 안겼습니다. 어쩌면 코스는 누군가가 자신을 다시 찾아주길 애타게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입소한 코스는 피부병도 모두 나았고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다만 미용을 맡기고 잠적해버린 가족을 마냥 기다려야 했던 탓일까요? 코스는 긴 기다림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듯 장난감에 엄청난 애착을 보이고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장난감을 사랑하는 코스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



시츄 / 3~5살 추정 / 남 / 7kg가량 / 건강함
사람을 잘 따르고 장난감을 좋아함



토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정리 <함께 나누는 삶> 편집부
사진 채현희 님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남양주 진접읍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강아지 공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공장 달려갔습니다. 비닐하우스 세 동과 바깥 뜰로 구성된 번식장에서는 77마리의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대부분 뜯겨 있었고, 배변은 3개월 이상 치우지 않고 방치돼 있는, 말 그대로 참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는 이곳의 개들을 구조하기로 결정, 77마리의 개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그중에 ‘토토’도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비좁고 더러운 강아지 공장에서 평생을 모견으로 살 뻔했던 ‘토토’는 현재 누군가가 기르다 사육을 포기한 요크셔테리어(‘로또’)와 함께 채현희 님의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과 무한 애정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토’와 ‘로또’, 아이들의 이름만 봐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할 것만 같은 ‘복권 가족’이랍

니다. ‘토토’를 입양한 채현희 님은 입양 초, 심장이 약하다는 점과 추정 나이 열 살이라는 많은 나이 등 토토의 이런저런 상태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로또와 달리 토토는 금세 적응했고,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거나 나이를 속이고 경로우대를 받았던 것인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동물자유연대에 전해 왔습니다.

채현희 님은 토토 입양 후에도 동물자유연대 네이버 봉사 카페 ‘함께 나누는 삶’ 회원들과 함께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 동물들을 가정으로 데리고 가서 가정 적응 훈련도 시켜주고, 애견카페에 들러 ‘소풍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소풍을 마치고 센터로 돌아가던 포메라니안(시흥 불법 번식장 화재 현장 구조, 그 후 입양되었으나 자주 짖는다는 이유로 두 번 파양됨)을 임시 보호하고 가정 적응 훈련 후에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채현희 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토토는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면 입양 후 토토의 똥꼬발랄한 모습을 좀 더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토토 입양 후기



토토네 블로그



토토네 인스타그램



살처분으로 일관한 방역, 남긴 것 무엇이 있었나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들이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늘 그래왔듯이 죽여서 없애는 방식의 차단 방역 기조로 대처하고 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일지라도 정부의 대량 살처분 예고를 방역의 일환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양심을 내리누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보여준 참혹한 살처분의 현장은 동물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심리 상해에 이를 만큼 처참했다. 산 채로 구덩이로 몰아넣어 생매장하는 것도 모자라 살려고 버둥대는 돼지들을 중장비로 내리찍으며 사지로 처넣었다. 실질 작업자가 심각한 트라우마 상해를 입었고, 이 사태를 뉴스로 접한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생매장 금지와 인도적인 살처분을 요구했다. 각 지자체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듯 금번 살처분에서는 가스나 질소 거품 등을 사용해 인도적으로 살 처분한다고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여전히 비인도적이고 산 채로 매장되는 현장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발생농장 3km 이내의 돼지들을 살처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생지역 관내의 모든 돼지를 없애기로 발표한다. 5개월령 이상의 돼지들은 정부가 수매하기로 하는데, 수매대상 돼지들은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축산물로 비축하고 수매되지 않은 모든 돼지는 신속히 살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5개월령 이하의 모든 돼지는 죽이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의해 열병 감염권 안에 들지 않는 돼지들이 10월 28일 기준으로 23만 8,548마리가 살처분되었고 5만 1,000마리는 정부 수매에 의해 조기 도축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인 데다가 치료나 예방 약이 없어 긴장감을 더 고조시킨다. 그래서인지 금번 발생에 대해 정부는 다른 때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 같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라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타당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살처분은 무수한 생명을 죽임으로써 질병의 존재를 삭제하려는 것이지, 방역의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 그동안 발생했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면 치사율 100%에 긴장하는 것이 무색하게 느껴질 뿐이다. 왜냐하면 지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도 무수한 생명을 살처분함으로써 바이러스를 없애고자 했을 뿐 치료제나 치사율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김병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축 살처분 비용으로 무려 3조 7,461억 원이 사용됐다. 살처분 기록이 없는 2012과 2013년을 제외하면 연간 약 2,200억 원을 살처분하는 데에 퍼부은 것이다. 이 역시 살처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치사율이 무서운 게 아닌 듯하다.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은 철저히 하되 예방적 살처분은 최소화하며 산목숨 산 대로 살게 하고 불가피해진 시점에만 인도적 살 처분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시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매번 다 죽이다시피 하고 돈을 쏟아부은 방역, 무엇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유기동물 보호소’, 안전한 보호의 공간인가 동물들의 무덤인가

거리를 떠도는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에
는 “유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는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자체는 동
물보호법에 명시된 유기동물의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요? 동물자유연
대는 유기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기동물 고통
사 방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왜 동물들의 '무덤'이 되었나?

글 서미진 활동가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말이 돼버린 '반려인구 천만 시대.'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을 만큼 반려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유기동물 문제' 또한 견잡을 수 없이 불어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상처를 안겨주곤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히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1] 유기동물 처리현황중 자연사 개체 수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 유기동물은 2008년 7만 7,877마리, 2018년 12만 1,077마리로 10년 사이 무려 4만 마리가 증가했지만, 동물자유연대는 또 다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유기동물의 자연사'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 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차디찬 보호소에서 고통 속에 방치된 채 죽음에 이르는 동물 역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보호 동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부실한 치료를 행하고 있으며 이는 오랜 시간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보호소 동물들은 입양보다 안락사 위주로 처리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고통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초,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유기동물 자연사와 치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사 결과 타 보호소에 비해 자연사 개체 수가 현저히 높거나 높은 자연사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나 검사가 제공되지 않는 보호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보호 환경과 보호소 관리자들과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재: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자연사 현황

지난 3월,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연사 개체 수와 원인, 입소 시 기본 검사 및 보호 중 치료 건강관리 여부와 그 수준, 보호소 운영 예산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총 222개 지자체의 청구 결과를 취합하여 자료를 정리 분석했고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보호소에서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지자체 보호소에서 입소하는 유기동물에 대해 육안검사와 촉진검사 정도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이마저도 전혀 시행하지 않는 보호소가 다수였습니다. 보호소 내 개체에서 파보바이러스, 홍역 등 치사율이 높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개체 간 전염을 막고 시설 내부에 도사리는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제거를 위한 조치들이 다방면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염성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키트 검사 등은 보호소의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기본 검사이나, 다수의 지자체가 입소 시 어떠한 기본 검사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보호 동물의 치료 수준에 있어서도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컸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충북 옥천군의 경우 감기, 피부병, 설사 등 기본적인 대중 치료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시 다양한 기본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근거한 다양한 과목별 치료가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보호소 내 자연사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도 많





아, 보호소 내 일부 치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률과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드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물 보호 및 관리 부실 주요 보호소를 찾아가다

유난히 무덥던 지난 8월,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을 돌며 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소 10여 곳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초 진행된 유기동물 보호소 자연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타 지역에 비해 동물 보호 및 관리 소홀이 확인된 보호소들이었습니다.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한 현장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약 10여 년간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한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사체를 살아 있는 타 동물과 함께 장 안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측에 문제 제기를 하자 “보호실에서 빨리 나오라”라고 낯을 세우며 상황을 무마시키려 할 뿐이었습니다. 허피스에 걸린 새끼 고양이를 다른 개체와 함께 좁은 장 안에 두거나 토사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면역력이 낮고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되는 모습을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한 여러 보호소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 관리자와의 대화를 통해 입소 동물에 대한 기본 검사 여부를 재확인했으나, 방문한 대다수 보호소가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입양 확정 후 입양자가 검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안내하는 보호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의 한 유기동물 위탁 동물병원의 경우 “유기동물은 자연 상태 그대로의 야생동물이나 마찬가지다. 건강한 동물을 기대한다면 펫샵에서 분양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사 방지와 생명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초부터 실시한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대상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해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마저 지켜지지 않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실태를 마주했습니다. 자료를 통해 파악한 보호소 입소 동물의 지난 4년간 자연사 원인은 고령이 아닌 사고나 상해, 질병 등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입소 전 혹은 입소 후 발생한 질환이나 외상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폐사하는 경우라 풀이됩니다. 즉, 수많은 생명이 보호소에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새 가족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들이 고통을 덜기는커녕 최소한의 존엄마저 지키지 못한 채 외로이 고통사하는 상황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보호소 입소 동물의 치료 의무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보호소에 머무는 동물들이 고통의 악순환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계의 모범생,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뷰·정리 박소연 활동가

세종특별자치시청(이하: 세종시)의 동물업무 담당 조직과 직무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농업축산과 가축방역담당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보고 있는 송영환 주무관입니다. 세종시에서는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에서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축방역담당 9명 중 동물보호와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인원은 저를 포함해 2명이고, 안타깝지만 동물보호 전담부서는 없는 상황이에요.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한 기본 검사나 치료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세종시의 유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세종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리얼펫 동물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이에요. 유기동물 발생 시 1차로 해당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병원에서 건강 상태 확인 후 사료 등의 음식 섭취가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유기동물의 경우나 수유가 필요한 새끼 고양이의 경우 병원에서 장기 보호를 하고 있어요. 반면 완쾌 불가한 질병을 가졌지만, 자가 섭취와 배변이 가능한 동물, 단순히 내복약만 복용하면 되는 동물의 경우 2차로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로 이동해 보호하고 있어요. 해당 보호소의 경우 과거 축사였던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략 100마리 내외의 개, 고양이가 관리되고 있어요. 작년 기준 입양률은 39.4%로 전국 평균 30.6%보다 높은 편이고요.

세종시 내 유기동물 발견 시 입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우선 시청, 동 면사무소, 119 119상황실, 경찰서, 포인핸드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데, 접수된 민원은 위탁 동물병원에서 1차로 처리해요. 또한 출동 시 먼저 반려동물 내장 칩의 유무를 확인하고 칩이 있을 경우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반환 조치를 하고 있어요. 칩이 없을 경우엔 동물병원에서 필요 시 혈액 검사 등 기본적인 검진을 진행해요. 이때 심장사상충이나 심한 골절이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만, 입양자가 확정되면 입양자, 병원, 세종시가 1/3씩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호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검사나 치료 제공 후 반환되면 반환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치료는 하지만 건강한 상태일 경우 검사나 치료를 잠시 보류하기도 해요. 응급치료가 필요한 동물의 경우 저체온증 치료, 산소 케이지 등 상황에 따른 치료를 적용하고 있고, 종합 백신과 사상충 예방 접종 등은 동물병원의 판단에 따라 대부분 제공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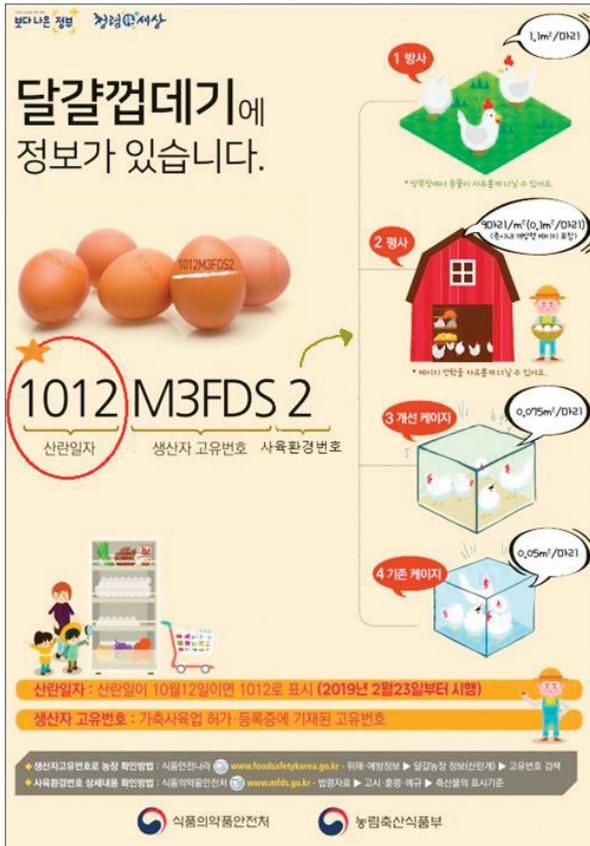
유기동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 입장에서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업 운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이에요. 세종시의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치료 비용은 두 당 약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 예산으로 새로 입소하는 유기동물이나 보호 중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어차피 공고 및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될 동물들에게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해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느냐”라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도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입소되는 동물들이 모두 건강하게 주인을 찾아가고, 또 입양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라 ‘보호 기간 동안이라도 건강하게 관리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마음입니다. 현재 세종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자연사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10.9%이고, 보호소 개소 초기보다 입양률은 증가했으며 안락사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적극적으로 관리 및 치료해 주시는 리얼펫 동물병원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과 더 나아가 직영 보호소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원활한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리자, 민원 담당, 출동요원, 상주인원 등의 인력 또한 확충이 필요하고요. 이를 반영한 직영 보호소가 운영된다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달걀아, 넌 어디서 왔니?

꼭꼭 숨어 있는 산란계 사육환경 표시

글 박선화, 김슬 활동가



지난 5월, 영국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트 쇼핑을 하던 중,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달걀 코너를 가봤습니다. 달걀은 크기와 개수에 따라, 브랜드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육환경에 따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마트와는 다르게 한눈에 달걀을 낳은 닭들이 지내는 사육환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달걀 포장을 열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육환경을 알 수 있었을까요? 소

비가 쉽게 사육환경을 알 수 있도록 사육환경에 대한 정보가 포장에 친절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호주에서는 달걀의 포장지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면 신기하게도 이 달걀이 어떠한 환경에서 왔는지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비좁은 케이지에서 자란 닭들이 낳은 달걀이라면 닭들이 케이지에 뻥뻥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이 보

이고, 케이지프리 달걀이라면 드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달걀의 포장지만으로도 어떤 사육환경에서 사육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3D로 닭들이 사는 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먹는 달걀에 대한 정보를 재미있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앱은 호주의 'CHOICE'라는 소비자 시민단체가 개발한 것으로, 달걀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가 농장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란계의 사육환경에 따라 달걀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한국의 경우 사육환경을 4단계로 분리하는 데 반해, 해외의 경우 Cage free(케이지에서 사육되지 않음), Free range(케이지에서 사육되지 않으며 바깥출입이 가능함), Organic(케이지에서 사육되지 않으며 바깥출입이 가능하고 유기농 사료를 먹음), Pastured(케이지 밖 자연환경에서 생활하고 먹고 알을 낳음), Vegetarian-fed(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사료를 먹고 주로 벌레 등을 섭취함) 그리고 Battery cage(케이지 내 밀집사육) 등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마트에는 다양한 달걀들이 있고 소비자들은 포장을 열어보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달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육환경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이 공장식 축산, 밀집사육으로 대표되는 끔찍한 배터리 케이지 달걀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걀이 사육환경에 따라 이렇게나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은 '케이지프리'라는 환경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케이지 밖에서 산다는 것이 닭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농장의 경우 닭들이 케이지 밖에서 살지만,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닭들이 빠르게 차서 발도 디디기 어려운 협소한 환경에서 비좁게 생활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에 비해 닭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실제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달걀의 표면(난각)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사육환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행된 사육환경 표시제에 따라 1번은 '방사', 2번은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흔히 알고 있는 기존 '배터리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의 개선된 케이지의 경우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어난 후, 산란계 케이지당 면적 기준을 0.05㎡에서 0.075㎡로 '아주 조금' 늘렸다는 의미로, 닭들은 여전히 A4 용지 한 장 남짓한 공간에서 날개도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호주처럼 달걀 포장지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면 신나게 뛰노는 닭들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달걀 포장만으로 사육환경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의 숫자는 소비자들이 달걀의 포장지를 열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중 포장된 달걀의 경우 사람이 복적이는 마트에서 포장을 일일이 열어보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지요. 소비자가 산란계의 사육환경에 대한 알 권리를 행사하기도,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가지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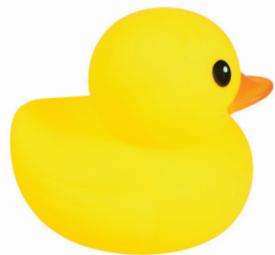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산란계의 사육환경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시민이 3, 4번의 숫자를 통해 평생을 케이지라는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닭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사육환경 포장재 표시'를 통해 우리가 사는 달걀이 어디서 왔는지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하고, 소비자의 식탁에 올려지는 배터리 케이지의 달걀과 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 실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행복한 나눔 오리 경주대회'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송민영 대리

인터뷰·정리 송지성 활동가



지난 8월 28일, 동물자유연대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 호텔에서 진행한 '제6회 행복한 나눔 오리 경주대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모금행사의 의미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고, 이날 대회에서 모금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의 송민영 대리를 만나 이번 행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이하: <메리어트>)는 호텔 철학인 '스피릿 투 서브'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매년 이어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리어트>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메리어트>가 이행하는 사회적 책임과 지역 사회 헌신에는 기업의 재정적 기부와 현물 기부, <메리어트> 직원들의 자원봉사가 포함돼 있어요. <메리어트>의 사회적 책임 의무는 우리가 살고 일하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며, 직원들에게도 문화 강화 및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판교>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은, 행복한 나눔 오리 경주대회, 아름다운 가게 기부 및 일일 판매 봉사, 토마스의 집(급식소) 배식 봉사 및 후원, 런 투 기브(마라톤) 수익금 후원, 홀트아동복지회 후원, 성남시 그룹홈(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들을 매월 뷔페 레스토랑에 초대해 저녁 식사 함께하기, 성남시 그룹홈(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등이 있어요.

올해까지 6회째 꾸준히 진행된 '행복한 나눔 오리 경주대회'를 통해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을 돕기로 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2014년부터 진행된 '나눔 오리 경주대회'에서는 그간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과 홀트아동복지회를 후원해왔어요. 그러다 올해는 보다 차원 높고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찾던 중 지금껏 해온 인권 및 인간 존엄성 보호와 더불어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데에 마음이 모아졌고,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만들이'와 결연을 맺고 있는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이번 대회를 진행하고 후원하게 됐어요.

동물자유연대가 '행복한 나눔 오리 경주대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오리 인형을 판교동 운중천에 띄워 보낸 퍼포먼스가 정말 색다르게 느껴졌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오리 인형 한 마리(기부금 1만 5,000원)를 선수 오리로 받아서 경주대회에 출전시킵니다. 단순 기부가 아닌 참여형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메리어트> 직원들과 시민, 기업들의 자원봉사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큰 행사입니다. (운중천에 띄운 오리는 경주대회가 완료되는 즉시 담당자들이 모두 수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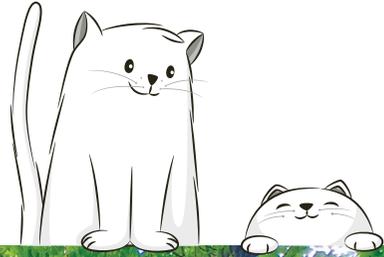
<메리어트>에서 향후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 행사나 동물복지에 대한 실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메리어트> 직원으로서,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준다는 원칙을 지침으로 삼고, 항상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동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보태고 싶어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가 캣맘, 캣대디들에게 드리는 글

글 구철민 활동가



지난 3월, 한 캣맘(이하: 제보자)이 아파트 펜스 너머에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아찔한 40m 높이의 수직 옹벽 위에 위치한 좁고 긴 공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양이는 출산이 임박한 듯 배가 볼록했습니다.

제보자는 고양이가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곧 새끼까지 낳아 기를 것이라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낚싯대를 이용해 매일 아침저녁으로 밥

과 물을 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밥 주기 낚시’는 SBS <TV 동물농장>에 제보가 채택된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자유연대는 SBS <TV 동물농장> 팀에 동물 구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나가 둘러보니 옹벽의 펜스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

다. 양이들이 다니기 충분한 틈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고양이 전문가도 고양이들이 갇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중 고양이들이 펜스 안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펜스 안으로 오가는 것이 확인된 고양이 가족은 길고양이로 살도록 존중해주고, 뒷다리 하나가 부러져 어미와 형제들을 따라다니지 못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하는 것으로 방송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지난 3월 이미 제보자는 동물자유연대에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제보자에게 사진과 내용을 전해 받고 고양이가 갇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소(離巢)할 텐데 펜스 너머에 계속 밥을 주면 오히려 옹벽에 눌러앉게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이자 집 마당에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캣대디로서, 매일 두 번씩 6개월간이나 낚싯대로 밥과 물을 준 제보자의 헌신적인 캣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안정적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새끼를 낳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미 고양이는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 이소합니다. 헌신적인 급식으로 고양이 가족에게 매일 먹을 것이 제공되었지만, 어쩌면 그로 인해 40m 절벽 위 생활이 길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벽이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펜스 안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됐기에 고양이 가족의 절벽 위 생활은 더 길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새끼 고양이는 결국 부상으로 인해 잘못되거나 어미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새끼 고양이는 6개월령이었지만, 3개월령 정도로 보일 만큼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습성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고양이가 펜스를 충분히 드나들 수 있음을 인정하고 펜스 안에서 급식을 했다면 새끼 고양이는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의 캣맘, 캣대디들이 자신이 밥을 주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굶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캣맘, 캣대디들이 활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고양이가 없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고양이가 인간으로 인해 척박한 환경에서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고단한 삶을 안쓰러워할 수는 있지만,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길고양이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캣맘, 캣대디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니고 고양이는 동정하고 무조건 굶어살펴야 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고양이 본연의 생존력을 믿고 그 삶을 존중하며, 고양이들이 덜 고단하도록 돕고 배려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어떨까요?



곳은 날씨에도 놓치지 않은 소중한 생명

글 강정미 활동가



동물자유연대의 나눔 사업 중 위기동물 지원사업 ‘쓰담쓰담’은 주변의 위기동물 및 유기동물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유기동물을 구조하는 시민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동물, 유기동물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구조, 입양을 더욱 독려하고자 합니다.

‘쓰담쓰담’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위기동물을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올해 ‘쓰담쓰담’ 신청 사업 중 특히 감동적인 최수정 님의 사연을 이 지면을 빌려 나누고자 합니다.



비를 맞으며 8차선 대로변을 걷고 있던 아기고양이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 부산 동의대 입구에서 가야파출소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8차선 도로 위로 다리를 절며 걸어가고 있는 아기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세운 후, 1t 트럭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아기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잘 아는 병원이 없어 SNS로 길냥이들을 구조하고 돌보는 캣맘에게 알아본 후,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고양이 위 속에 음식물이라고는 구조 후 제가 먹인 캔뿐이고 먹으면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일찍 어미를 잃어버렸거나 어미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골절로 아파도 울지 않는 아기고양이

이빨 상태로 보면 나이가 두 달은 족히 되었을 텐데, 몸무게나 크기가 2주 정도 된 아기고양이와 비슷하다고 수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더불어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저 정도의 골절 상태면 상당히 아플 텐데 고양이가 울지 않는다. 많이 참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먹이 대신 이물질을 먹은, 또래보다 작은 아기고양이, 골절로 고통스러워도 울지 않고 빗속에서 8차선 대로변을 걷던 아기고양이. 저는 이 고양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조한 날은 주말이라 수술이 어려워 월요일 오후에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뼈가 너무 약해 이중으로 핀을 박아 외부로 고정하는 처치를 했습니다.

수술 후 약 2~3주 뒤에 외부의 고정핀을 제거하려 했는데, 뼈가 다 붙지 않아 핀은 한 달 뒤에야 뺄 수 있었지만, 큰 수술을 마친 아기고양이는 훨씬 편안한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하트’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가족

아기고양이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입원 당시 400g이던 몸무게가 1.5kg이 되었습니다. 뼈가 완전히 붙으려면 한두 달은 더 지켜보고 병원에서 계속 보살펴야 하지만, 수의사 선생님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해져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아기고양이에게 아들은 ‘하트’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하트는 장난 아니게 ‘똥꼬발랄’합니다. 하트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아들과 낚싯대 놀이를 하고, 아직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할 수 없어 함께 째는 우다다를 하며 놀기도 합니다. 키우고 있던 노견 단비 할매와는 아직 서로 데면데면하지만 탐색하는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는 중입니다.





2년 차 초보 캣대디의 고민

글·사진 신영배 (Magazine PAPER 기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사무실에서 임시 보호하며 1년여간 보살피던 고양이들을 하나둘 입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양이 고 씨(응? ‘고양이 묘’가 아니고?)’ 성을 따라 ‘고복순’, ‘고용만’, ‘고순둥’까지 세 마리 고양이의 집사가 된 지도 몇 해가 흘렀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세 마리의 고양이들과 만나게 된 사연도 구구절절하고, 집사로써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최근엔 집 주변에서 새롭게 만나는 ‘묘연’들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 시작은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한 ‘길목이’와의 만남이었다. 연일 폭염주의보 재난 문자 알림이 울려대던 지난해 여름, 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헤집고 있던 길목이와 처음 만났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당시에 나는 “거리의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 아니면 선불리 밥을 주지 말라”라는 문구를 어디선가 읽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지내던 터였다. 끝까지 행하지 않을 거면서 알팍한 측은지심에서 한 선부른 행동이 길 위의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고? 나는 끝내 길목이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외면하지 못했다. 거리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려고 들고 다니던 간식이 때마침 떨어지기도 했고, 바로 집 앞에서 길목이를 마주했기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올라가 사료와 물을 갖고 다시 길목이에게 향했다.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픈 배를 채우고, 마른 목을 적시던 길목이. 이것이 길목이와의 첫 만남이었다.

길목이는 한쪽 귀가 커팅된 것으로 보아 이미 누군가의 손길로 중성화 수술 후 방사된 고양이였고, 나는 길목이에게 사료를 준 시점을 기점으로 길목이를 위한 사료를 따로 구매했다. 다행히 함께 사는 주민들도 조용히 밥과 물만 마시고 사라지는 길목이에게 큰 거부감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초보 캣대디로서 길목이와 맺은 관계는 한동안 평화롭게(?) 유지됐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리 집 주변에 밥과 물이 있다는 사실이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소문이 나서였을까. 얼굴이 큰 ‘얼큰이’, 꼬리가 뭉툭한 ‘뭉툭이’, 온몸이 노란 ‘인절미’가 길목이의 밥을 함께 먹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새롭게 등장한 고양이들 모두 우리 집 주변에 터를 잡은 게 아니라 배를 채운 뒤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갔고, 밥을 먹으러 오는 시간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번 주면 됐던 밥을, 아침과 저녁 두 번 넉넉히 주면 되는 정도였다. 또 이걸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길목이를 제외한 다른 고양이들은 더는 밥을 먹으러 오지 않기도 했고...

아무튼 길목이가 우리 집 앞 작은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사람을 봐도 이전처럼 심하게 놀라거나 경계하지 않는다(감사하게도 빌라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햇살 좋은 날이면 집 앞마당에서 조용히 식빵을 굽기도 하고, 자신의 몸 이곳저곳을 가꾸기 시작했다. 밥을 놔주는 빌라 오른쪽 옆 좁은 통로와 콘크리트로 된 작은 마당은 길목이의 또 다른 터전이 된 듯했다. ‘그들’이 빌라 왼쪽 좁은 통로에 터를 잡기 전까지는 말이다.

올해 여름, 곧 긴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매일 우중충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을 때, 한 어미 길고양이가 새끼 두 마리를 이끌고 내가 사는 빌라 왼쪽 통로, 즉 길목이가 밥을 먹는 통로 반대편에 터를 잡았다. 새끼 중 하나는 어미 배 속에 있을 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왼쪽 뒷다리가 채 자라지 못했는지 세 발로 어미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연신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마른 젖을 물리느라 지쳐 보이던 어미와 주먹 크기의 작은 어린 길고양이들의 모습을 못 봤으면 모를까, 직접 내 두 눈으로 본 이상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길목이와 어미 그리고 새끼 두 마리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게 되었다. 왼쪽 통로에도 세 마리 고양이들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밥을 놔주고 있지만, 먹성 좋은 아이들이 귀신같이 길목이의 밥을 찾아내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2년 넘게 그곳에 살았지만 잘 몰랐던 통로를



아기고양이 녀석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바로 빌라 뒤에도 좁은 통로가 있었던 것. 경계심이 강한 아이들은 디글 자 형태의 좁은 통로를 오가며 사람이 다니는 마당을 가로지르지 않고 오른편 길목이의 밥까지 모조리 먹었다. 그런데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지 않은가. 그렇게 길목이가 먼저 우리 빌라 주변을 자신의 밥 터로 정했지만, 길목이는 순하디 순하고 겁 많은 고양이었기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이들이 자신의 밥을 먹고 있으면 멀찍이서 아이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문제는 먹성 좋은 아기고양이들이 길목이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 SNS를 통해 다른 캣맘과 캣대디의 소식을 보면, 서로 다른 터에 사는 고양이들도 한곳에서 평화롭게 밥을 먹기도 하는데, 우리 빌라에서는 그런 모습을 1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와 함께 한 계절을 보내면서 부쩍 큰 아기고양이들은 이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길목이를 몰아내려 하고 위협한다. 그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는 꽤 커서 자꾸 신경이 쓰인다. 왜냐고? 그동안 내가 밥을 주는 걸 잘 참아주던 빌라 주민들이 인내심을 잃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밖으로 나가보지만 그때뿐이다. 두 마리의 어린 고양이들은 기어코 길목이를 몰아내려고 작정한 듯 보이고, 이 부분은 내가 강제로 어찌할 수 없었다.

또 하나의 걱정, 요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떠난 것 같은데, 아이들의 크기로 보아 나이가 5~6개월령은 돼 보인다. 곧 중성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울음은 더욱 커질 것이고, 서울 동네 대부분이 그러하듯 우리 집 주변으로 다른 빌라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나는 늘 노심초사한다. 나는 기껏해야 아이들의 고풍 배와 목마름만 채워줬지, 캣대디로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이 정도만 돌봐주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년 2월이면 집 계약이 만료돼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살던 곳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역시 집값이 만만치 않다. 그럼 지금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찾아 떠나야 할 텐데, 이곳에서 멀어질 것이 뻔하다. 누군가는 냉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비싼 월세를 내며 희생하기엔 너무 벅찬 노릇이다.

그러나 아직 내년 2월까지의 시간이 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며 아이들이 나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자생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사 전까지 아이들이 자생 능력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방법은 있다. 이전에 한 번 구내염이 심한 한 아기고양이 구조 문제로 캣맘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 있는 동네 캣맘에게 아이들의 밥을 부탁해볼 예정이다. 그녀가 보살피는 아이들이 많아 어렵다면, 아이들이 완전히 자생 능력을 갖출 때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퇴근길에 들러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사 전 나의 최대 숙원 사업(?)인 아이들의 중성화 역시 여러 번 구조 경험이 있는 지인이나 친구, 구청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등에 문의하고 조언을 얻을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세 마리 고양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길목이를 포함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과도 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집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문제는 단순해지고, 현재 내 안의 고민은 시시한 것이 된다. 나와 연을 맺은 고양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살피면 되는 것이다.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 생명 존중을 복돋아줄 동물 관련 문화 정보

온통 구겨진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너 그리고 노래

음악 <언젠가 너로 인해> 가을방학



“아주 긴 하루 삶에 지쳐서 온통 구겨진 맘으로 돌아오자마자 팽개치듯이 침대에 엮어진 내게 웬일인지 평소와는 달리 가만히 다가와 온기를 주던 너.” - <언젠가 너로 인해> 中

‘가을방학’은 ‘언니네 이발관’, ‘줄리아 하트’ 등의 밴드를 거쳐온 정바비와 ‘브로콜리 너마저’ 출신 보컬 계피가 만나 결성한 모던록 밴드이다. 이들의 정규 2집 수록곡 <언젠가 너로 인해>는 정바비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생각하며 쓴 곡인데, 계피는 이 곡을 처음 듣고 “조카가 태어나던 날 병실에 누워 눈물을 흘리던 친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한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반려동물을 통해 얻는 위로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주는 기쁨, 이 둘이 나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 너로 인해>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려 깊은 노랫말과 멜로디로 가득하다. 이 좋은 계절, 덩달아와 함께 오붓하게 산책할 때 들어도 좋고, 어느새 나의 품에 파고 들어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냥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들어도 좋은 곡. 신영배

살처분된 동물들을 묻은 땅에 대한 불편한 기록

책 <문다> 문선희



돼지는 공중에서 버둥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오리는 뒤뚱뒤뚱 쫓기다가 구덩이 속으로 후드득 떨어진다. 살처분 당시 구덩이에 내던져진 돼지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는지도 모르는 채 태어나 처음으로 밟아보는 흙과 깨끗한 공기를 맡으며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게 영문도 모르는 채 두리번거리던 동물들의 머리 위로 흙더미가 쏟아진다... 바로 2019년 현재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현장에서 자행되는 일들이다. 9,800만, 짐작도 가늠도 되지 않는 이 천문학적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당한 동물들의 숫자라 한다. <문다>는 2010년, 전국에 생인 4,799곳의 살처분 매몰지 중 무작위로 선정한 100곳의 땅을 2년 이상 추적하며 무고한 생명들이 처참히 묻힌 땅의 불편한 변화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묻는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생명을 계속 묻고 또 묻는 현재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처법은 과연 합당한지, 최선인지, 이대로 계속 관망은 건지. 장보영

동물에게 동물원이란?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 원> 왕민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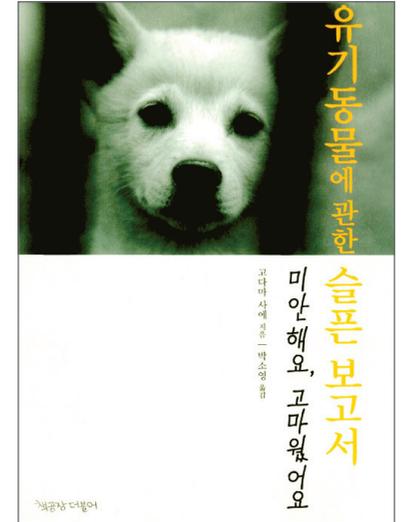


좁은 우리에 갇혀 지내는 동물들을 보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야생동물이 마음 편히 발붙일 곳 없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종의 보호와 존속을 위해 동물원 같은 공간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동물, 원>은 청주동물원의 동물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관람객 대신 사육사와 수의사의 모습을 주로 담고 있어서 인지,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과 동물원의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게 된다. 과연 동물들은 그들을 둘러싼 사육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자유를 구속하는 감옥일까, 생존에 필요한 든든한 울타리일까. 사실 자연 그대로의 상황이었다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동물원인데... ‘바깥 환경을 다 파괴해놓고는 생존을 위해 인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다니, 인간이란 존재는 대체 뭘까?’ 궁금해지고 또 부끄러워진다. 만약 인간이 동물원의 야생동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생존을 위협받을지언정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사는 쪽을 택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인간성을 다소 상실하더라도 생존을 우선시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다. 당장은 다른 동물들이 인간만큼 철학적이진 않길, 그래서 동물원에서 몸은 답답할지언정 마음이라도 편하길 바라는 수밖에. 박주호

유기동물에게 안락한 죽음은 결코 없다

책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고다마 사에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동물에 관심을 두게 된 저자 고다마 사에가 일본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돌며 찍은 사진으로 엮은 포토 에세이다. 이 책을 출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살처분하는 동물들의 숫자가 40만 마리를 넘었지만, 출간 5년 뒤에는 약 31만 마리로 감소했다고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과연 인간에게 그들의 목숨을 억지로 앗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또한 “유기동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라고 말하고들 하는데, 과연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등 유기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상세히 전한다. 인간의 욕심으로 버려지는 동물들에 관해 철저하게 탐색한 책. 월간 <Ohboy!>





아프리카 돼지열병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치사율 100%의 전염성 질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경기도 파주 돼지 농가에서 처음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연천, 김포, 강화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5,000여 마리의 돼지들이 무차별적으로 살처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살처분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의식이 남아 있는 돼지를 또한 살아 있는 상태로 생매장되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살처분 현장방문 및 모니터링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무분별한 살처분이 아닌, 철저한 방역을 통한 확산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부득이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한다면 인도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준수와 동물단체 모니터링단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구포 개시장 철폐

동물자유연대는 60여 년 동안 수많은 개들이 도살되었던 전국 3대 개시장인 구포 개시장 철폐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구포 개시장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의 전시나 도살이 중단되었고, 모든 종류의 개고기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구포 개시장에 남아 있던 80여 마리의 개들은 구조되어 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에서는 구포 개시장의 조기 폐업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300여 마리의 개들의 추가적인 희생을 막았으며, 철폐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 도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육곰 캠페인

‘사육곰’이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반달가슴곰이 무려 520여 마리에 달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육곰들을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시민 참여단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육곰들의 행동풍부화를 위한 ‘해먹 제작 및 설치’와 시민들에게 사육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육곰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생츠퍼리(보호소) 건립과 사육곰의 안전한 보호까지,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양이 학대 대응

2019년도에는 유독 고양이에 대한 학대 사건이 많았습니다. 잔혹하게 고양이를 내리쳐 죽인 화성 연쇄 고양이 살해사건, 고양이를 토막 내 급식소에 사체를 유기한 목동 고양이 토막 살해사건, 삼으로 고양이를 내리쳐 한쪽 눈을 잃게 만든 파주의 학대 사건 등등. 동물자유연대는 학대를 받은 고양이들을 구조 및 보호 조치했으며, 학대행위를 한 학대자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 학대 사건들은 갑자기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며, 과거에도 분명 존재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재는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고양이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넣어주시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고양이에 대한 학대보다는 돌봄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식용 철폐 대집회

지난 7월 7일, 서울시청에서는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과 이상돈 의원, 한정애 의원, 박원순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함께 개식용 종식의 염원을 담아, 개식용 종식을 외쳤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청와대까지 행진이 이어졌으며, 청와대 앞에서는 정부에 개식용 종식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7월 12일에는 전국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구의 칠성시장 앞에서 개식용 철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구포 개시장 철폐에 이어 대구 칠성시장과도 협의 과정을 거쳐, 대구 칠성시장의 개식용 철폐 또한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동물학대 대응포럼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지자체 동물보호팀, 수의사 등 동물학대 대응에 관련된 전문가 위원들과 현재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 및 보완하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동물학대 대응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물학대 대응포럼은 단순히 한 주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동물학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국 동물학대 대응에 대해 점검해본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학대받는 동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통영 개농장 철폐

7월 29일, 통영의 한 개농장에서 50여 마리의 개를 키우며 몽둥이로 개들을 때려죽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을 방문해 해당 개농장 주인을 고발하고 24마리의 개들을 구조한 후, 보호소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이후 개농장의 뜬장은 모두 철거했으며 통영 지자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도살장 철폐와 개식용 종식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먹어보개, 맛있다냥!”

글·사진 조은희 선임 활동가

가을은 입맛이 끝없이 살아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내내 힘겹게 지켜왔던 몸매가 쉽게 망가지는 시기죠! 그렇다고 마구마구 먹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 너무나 참기 힘든 식욕을 동물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잠깐이나마 대리 만족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반려동물복지센터 친구들은 사계절 내내 24시간 입맛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사료도, 대부모님이 선물해준 간식도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답니다. :)



PROJECT FREE: THE BEAR

사육곰에게 자유를

응답채취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사육곰,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